

골든타임 지킨 시민들... 중요성 커진 심폐소생술

학생·택시기사·행인 등 시민이 심정지 환자 4명 구해 시행률 30% 넘어... "최초 목격자 신속 시행 절대 중요"

최근 제주지역에서 심정지로 위기에 처한 응급환자를 심폐소생술로 구한 시민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일반인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6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도내에서 학생·택시기사·행인 등 일반인들이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심정지 환자 4명의 목숨을 구했다.

지난 7일 한라산에서 등산 중 쓰러진 40대 남성을 10대 학생이, 8일에는 택시 안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70대 남성을 택시기사와 주변 시민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로 구했다. 10일에도 제주도 애월읍 평화로 인근과 제주도 연동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 2명을 주변인들이 심폐소생술로 살렸다.

이들 심정지 환자들은 모두 현장에서 자발순환을 회복했다. 일반인들이 신고 후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119의 영상 응급처치 지도에 따라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결과다. 자발순환 회복은 심폐가 다시 뛰며 혈액이 도는 상태

를 말한다.

지난해 도내 심정지 환자의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률은 5명 중 1명 꼴인 20.4%였다. 최근 4년간 자발순환 회복률을 보면 2022년 15.5%, 2023년 18.8%, 2024년 20.4%, 2025년 20.4% 등으로 4년 연속 전국 도 단위에서 가장 높았다.

도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의 생존은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시민의 용기 있는 행동에서 시작된다. 심정지는 발생 후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지는 만큼 최초 목격자의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질병관리청 조사를 보면 일반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율은 14.4%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6.1%)보다 약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도민들의 응급처치 참여 문화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21년 17.7%에서 2022년 26.8%, 2023년 27.4%, 2024년 36.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소방안전본부는 "심폐소생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배워 실천할 수 있는 생명 구하기 기술"이라며 도민 누구나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리플릿을 제작하고 응급처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소정기자

농촌 빈집서 귀금속 훔친 20대 구속

1000만원 상당 절도... 수익금은 생활비 탕진

서귀포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20대가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주거 침입 및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20분 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단독주택에 침입해 목걸이 등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훔친 목걸이는 제주도 소재 귀금속 취급 업체에 중고로 판매한 뒤 현금으로 바꿔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무단으로 침입한 주택은 이날만 세 곳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이 이뤄진 주택은 두 번째 방문한 주택으로, 첫 번째와 세 번째 주택에서는 절도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주택들은 모두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한 단독주택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도로로 이동했으며, 귀금속을 훔친 후 차를 타고 도주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차량번호를 특정하고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이어 잠복 수사 끝에 지난 달 27일 A씨 차량을 발견해 검거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죄 수익금을 모두 생활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귀포경찰서 형사5팀은 해당 사건 범인 검거에 이어 '첫알오름 예비검속 희생자 추모비' 모금함에 보관된 현금 2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를 하루만에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6월 '연성 히어로'로 선정됐다. 양유리기자



판포포구 피서객들 초여름 날씨를 보인 16일 제주도 환경면 판포리 포구를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이원화 자치경찰제, 제주서 시범 운영해야"

16일 제주자치경찰 창설 20주년 기념 토론회서 제언 황문규 교수 "현행 실질적 자치경찰제 구현 한계"

전국 첫 자치경찰 조직인 제주자치경찰단이 창설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 자치경찰제 구현에 한계가 있다며 자치분권의 실질적 구현과 지역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은 시

대적 과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마련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에 대해선 제주를 시범지역에 포함 운영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6일 제주도 메종글래드 제주에

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이 마련한 '제주자치경찰 20년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 이원화 자치경찰제 방향과 제도적 발전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교수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 조직 안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

어 실질적 자치경찰제 구현에 한계가 있다"며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지역경찰 기능의 실질적 이관과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 교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라도 형식에 치중할 경우 무늬만 이원화 자치경찰제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며 "자치분권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이원화 모델은 현행 시도경찰청을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이른바 자치경찰 중심의 이원화 자치경찰제"라고 주장했다.

오충익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실질적 권한과 인력 부족, 확대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경찰과의 기능 중복과 현상 혼선 등을 향후 제도 보완 과제로 제시하며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 소속 자치경찰 조직을 20년간 운영해 온 지역인 만큼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수사시스템 고도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초등학교서 여교사 대상 범행 잇따라

교사 텀블러서 체액 발견 경찰 수사 중 소변 테러도

서귀포시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성 교사의 자리를 노린 범행이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외부인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개방형 학교 구조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6일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4월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20대 여교사의 개인 텀블러에서 수상한 액체가 발견됐다. 해당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남성의 체액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초쯤 같은 학교, 같은 학급에선 교사용 의자에서 소변이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 4월 발생 한 사건으로 병가 중이던 피해 교사를 대신해 채용됐던 교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외부에서 침입한 고등학교 남학생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

으로 전해졌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피해 교사는 거듭된 충격과 불안으로 교육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외부인이 손쉽게 교실까지 진입할 수 있는 현재의 개방형 학교 구조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서울 등 타 지역 학교가 한 장소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폐쇄형 구조'인 것과 달리, 제주는 2000년대부터 열린 교육을 표방하며 초등학교 담을 허물었던 '개방형 구조'가 유지되며 안전 문제를 유발한다는 주장이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학교안전지킴이 인력도 일부 시간만 봉사자(1일 5시간)를 채용하고 있어, 교육활동 시간 중 외부인 침입에 대해선 통제 불가능한 구조"라며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주도교육청에 촉구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독자 제보 750-2232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계장원농장

< 무병묘 >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2026년 **예약 중 보조사업 가능**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굴 유라조생 / 하갈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010-4450-4316**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계장원농장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2.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 + 고정판 + 인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